변화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니시가와 세이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불안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우리 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신뇨엔은 개조 이토 신조의 가르침에 따라 접심(接心) 수행과 이타행을 통해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작은 나눔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이야말로 '상락아정'의 삶입니다. 그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멀리 퍼져 나갑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이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모여 어둠을 밝힙니다.

현 원주이신 이토 신소의 가르침처럼 모든 이가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서로 돌보는 융화 세계가 실현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기를,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법화등불 온세상 밝혀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암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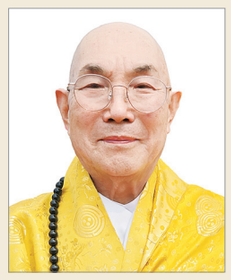
靈山一會今猶在
久遠釋尊常說法
一念歸依法華海
娑婆卽是寂光土

영산의 한 법회는 지금도 이곳에 있고, 구원석존께서는 항상 법을 설하시네. 한 생각 법화의 바다에 돌아가면, 사바세계 그대로가 적광토이니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과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과 함께 그 거룩한 뜻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과 열반에 매인 것이 아니라, 법신의 광명으로 온 세상에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부처님오신날은 과거 어느 날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지견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지혜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내 마음속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모든 중생의 불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넘치는 오늘날, 우리 종도들은 〈묘법연화경〉의 정법을 의지해 다툼 대신 화합을 앞세워야 합니다. 참회와 정진으로 이웃을 부처로 섬기며, 이 아름다운 영산정토로 장엄해 나갑시다.

공한 지혜 평화길 열리다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환희로운 부처님오신 날은 중생을 덮고 있던 무명 속에 밝은 지혜의 문이 열린 참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에 치우친 집착이 모든 괴로움을 낳는 뿌리임을 꿰뚫어 보시고, 바른 관찰과 자비의 실천이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이셨습니다. 삼론의 가르침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과 치우친 견해를 비우고, 텅 빈 공(空)한 지혜로 세상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날 대립과 혐오,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흑백논리와 옳고 그름의 분별심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치우침 없는 중도의 눈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언제나 말과 행동을 바르고 청정하게 가꾸어 주십시오.

가정에는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에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가 나라에는 평화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지혜로운 보살이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 세상 이루는 불제자

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 스님



속이 비어 있는 나무로는 금당의 기둥이 될 수 없고,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듯, 허상과 자만, 과욕이 가득한 심성으로는 자애로운 부처님의 미소를 볼 수 없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미사여구를 버리고, 생활불교가 되어야 더불어사는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먼저 화합을 실천하는 선구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땀 흘리며 중생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구촌 모든 이들의 고통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력, 화목, 평등, 포용, 그리고 자비심이 담긴 사랑이 있어야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합니다. 종교와 이념, 흑백 갈등을 초월해 인류를 위해 헌신하며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오신 불제자 모두에게 존경과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참뜻을 깊이 간직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선교일여 자비꽃 피우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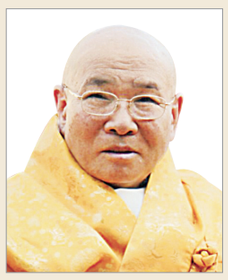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사부대중과 국민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화려한 안락을 과감히 떠나 생로병사라는 근원적인 고통을 마주하셨고, 마침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고해를 건널 수 있는 깨달음의 진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선과 교가 결코 둘이 아니듯, 마음을 닦는 수행과 치열한 일상생활 또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면을 밝히는 참선은 반드시 이웃의 아픔을 살피는 이타적인 자비행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숭고한 말씀은 머리가 아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불자 여러분, 각자 머무시는 삶의 터전에서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연등을 환하게 켜고 세상을 따뜻하게 덥혀 주십시오. 차별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큰 깨달음 새 희망을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환희작약하며 봉축합니다. 모든 불자님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량한 평안과 복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것은 단순한 한 인간의 탄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짙은 무명과 고통 속에 머물던 뭇 중생들에게, 스스로 내면의 참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위대한 우주적 소식입니다.

대각의 진정한 정신은 밖을 향해 헛된 복과 요행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묵은 어둠과 어리석음을 통쾌하게 깨뜨려 지혜롭고 주체적인 삶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맹목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 다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고 공생하려는 대각의 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일상에서 나누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곧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사부대중 모두 다 함께 정진합시다.

자비심이 평화의꽃 되리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내마음의 물결에서 일어나니,성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의 미소를 지을 때 비로소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연등은 단순한 불빛이 아닙니다.하심(下心)의 등불이며,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발원하는 서원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처한 갈등과 대립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은 오직 '무아(無我)와 상생(相生)'의 가르침뿐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비로소 이 땅이 곧 정토(淨土)요,오늘이 곧 부처님께서 오신 참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고루 비추어,질병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기를 간절히 발원하며,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물을 주어,향기로운 해탈의 꽃을 피웁시다.부처님의 가냘픈 미소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청정승가 자비길 되다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법승 삼보의 크나큰 공덕과 가피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번뇌를 여의는 청정한 해탈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승가의 진정한 참모습은 단순히 세속을 떠나 산중에 머무는 형식적인 은둔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정법을 올곧게 받들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상을 바른길로 이끄는 데 승가의 참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불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로움이 짙어지는 시대일수록, 불교는 중생이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스스로 계행을 맑고 투명하게 지키며, 그 청정함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수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眞如苑 신뇨엔

이타행 9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
6대주에 꽃을 피워 세계로 미래로




신뇨엔 서울정사



신뇨엔 부산정사

▷ 신뇨엔 서울정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46 / 전화 (02)719-6998
▷ 신뇨엔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 전화 (051)892-6998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 · 부산 · 제주 · 창원 ▷ www.shinnyo-enkorea.or.kr